

## ‘성화 봉송’ 광주의 외국인 며느리 4인방

# “우리도 당당한 광주시민 체전 성공 위해 뛰어야죠”

제88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알리는 성화를 들고 광주의 외국인 며느리 4인방이 뛴다.

체전 성화 봉송 주자인 우엔티웃(23·서구 내방동·베트남)·박나탈리아(29·서구 양동·우즈베키스탄)·나수팡(28·광산구 송정동·태국)·카리다드(33·남구 주월동·필리핀)씨가 5일 오전 광주시 서구 염주동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다.

자신들의 손에 의해 옮겨질 성화가 개막식인 8일 점화될 월드컵 경기장 성화대(聖火隊)를 구경하기 위해서다. 또 체전주간기획단(단장 김정훈) 관계자들로부터 성화를 건네받는

### “얼굴색 다르고 한국말 서툴러도 광주는 제2의 고향”

방법 등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지난 2002년 남편을 만나 광주에 등지를 틈 박나탈리아씨의 얼굴이 가장 진지했다. 조부모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피해 고향 합경북도를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박씨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박씨는 “3대가 타국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 가족에게 광주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다”며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다 눈을 감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며 성화 봉송에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께 맹랑 수술을 받은 나수팡씨는 주변의 반대에도 부상 투혼(?)을 불태우고 있다. 아직은 달리는 게 자유롭지 않지만 지난주부터 매일 남편(39)과 운동을 하고 있다.

광주 생활 3년째인 우엔티웃씨는 “길을 잘 몰라, 성화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며 지도를 보고 또 봤다.

세 아이의 엄마인 카리다드씨는 “친구들에



전국체전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하는 외국인 며느리들이 5일 오전 서구 염주동 월드컵 경기장 성화대 아래서 성공 체전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원쪽부터 나수팡, 카리다드, 우엔티웃, 박나탈리아씨.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게 놀림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된다”며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졌다. 초등학교생인 큰 딸(10)과 작은 딸(9)이 얼굴색이 약간 겸다고 또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때문이다.

카리다드씨는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자신감을 주고, 내가 한국인이며 광주 시민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 성화를 높이 치켜들고 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기아차 동차 후문까지 고작 1km(50구간)을 뛰게 되지만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은 남달랐다.

세 곳에서 체화된 불꽃이 하나로 모여 체전을 밝히는 성화대로 옮겨지듯, 이들의 가슴속에는 얼굴색이 서로 다르더라도 광주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겠다는 바람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무등산에서 잇따라 제화된 성화는 7일 광주시 청 앞을 출발, 720명의 봉송 주자에 의해 광주 시내 88개 구간(130km)을 돌아 개막일인 8일 오후 6시30분께 월드컵경기장 성화대에 접화된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체전 준비 끝

제88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가 5일 오후 체전의 주경기장이 될 광주월드컵경기장 꽃 조형물에 물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전국체전 손님맞이 준비를 최종 마무리 했다.

/나영주기자 mnj@kwangju.co.kr

### “비밀보장 할테니 ‘발바리’ 피해 품 찾아가세요”

#### 광주 북부경찰 카페개설

경찰이 ‘발바리’(전문 성폭행범) 가 숨진 물건들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도난당한 목록과 사진을 올렸다.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경찰서 방문 문을 깨닫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내를 돌며 5년 동안 46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은 이모(38·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이씨가 숨진 고급시계·카메라·귀금속 등 10점을 압수했다.

이중 30여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으나, 나머지 카메라(6대), 캠코더(2대), 고급시계(11개), 금반지(7개), 목걸이(4개), 전자수첩(1개) 등 70여 점은 주인을 찾지 못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빛고을 헌터’(http://cafe.daum.net/coptopia)에 도난품 사진을 올려 피해 물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도난품 확인 후 전화를 걸어오면 택배도 해주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태풍 ‘크로사’ 간접영향

#### 광주·전남 휴일 비

휴일인 7일 광주·전남지역은 제15호 태풍 ‘크로사’(KROSA)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대형급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면서 7일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어 허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태풍은 5일 오후 12시 현재 ▲최대 풍속 초속 49m ▲강풍반경 500km의 매우 강한 대형급 태풍으로, 타이베이 이남동쪽 600km 해상에서 속도 9km/h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북서진하면서 8일 오전 9시께 대만 타이베이 북쪽 240km 해상까지 진출하겠다”며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북동쪽으로 전향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말인 6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다가오는 태풍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 많겠다.

구름 조금 17~27°C

구름 조금 18~27°C

구름 조금 19~27°C

구름 조금 17~27°C

구름 조금 17~28°C

구름 조금 16~27°C

구름 조금 16~27°C

구름 조금 18~27°C

구름 조금 16~28°C

구름 조금 16~28°C

구름 조금 16~28°C

구름 조금 17~2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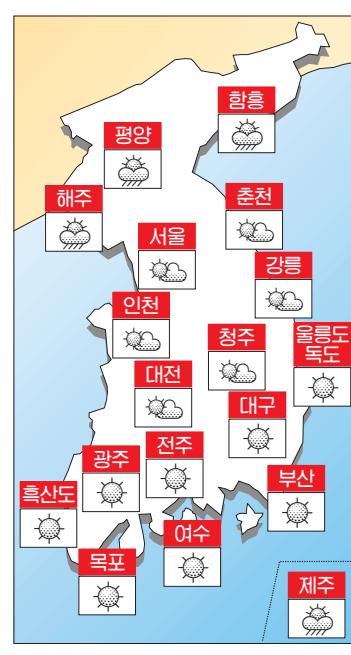
구름 조금 15~27°C

구름 조금 19~25°C

#### 10월 6일 (음 8월 26일)



◇전국날씨



▲해뜨 06:30 ▲해짐 18:11 ▲달뜰 01:29 ▲달질 15:45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9/26 18/27 17/24 16/24 14/23 13/22

### “부모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

###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돌려줘라”

#### 서울중앙지법 판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줬거나 성인인 가입자에게 요금 체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통신사가 과도하게 청구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김모군 등 미성년자 5명과 정모씨 등 성인 4명이 이미 납부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1천300여만원

을 돌려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김군 등 5명이 SK텔레콤과 정보이용계약을 맺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시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김군 등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김군 등이 낸 정보이용료는 부당이득”이라며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학생에게 특정 종교 강요는 위법”

#### ‘종교투쟁’ 강의석씨 승소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를 설립한 종교 단체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내 종교 자유’를 침해당해 협약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강의석씨가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광고는 원고에게 1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해 협약에서 규정한 교육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의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학교의 종교 행사 강요로 협약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의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학교의 종교 행사 강요로 협약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조모(40)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풍동동 김모(여·32)씨의 M 만화 가게에서 자신이 일하는 중국요리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등 항의하며 육설을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평소 김씨의 가게에 만두나 탕수육 등 서비스를 많이 줬는데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화 가게 영업을 방해한 중국요리점 배달원이 경찰서행.

○·김씨는 경찰에 “김씨가 다른 중국요리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것 같아 화가 나 소란을 피우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기자 김여울 기자 golee@kwangju.co.kr

내용참

7324

김정우

김정우</